



해외

WORLD

몰디브에서 사리탑 발견 '화제'

몰디브인 12C중엽 이슬람교 영향 받기 전까지 불교 신봉

스리랑카 남서쪽에 위치한 섬 나라 몰디브에서 원주민이 우물을 파던 중 불교유적이 발견돼 화제가 되고 있다.

몰디브 지역신문인 미니반 뉴스(Minivan News)의 보도에 따르면 산호초로 만들어진 사리탑은 몰디브 섬 북부에 위치한 라 아톨(Ra atoll)에 사는 원주민 유스프 아담(Yoosuf Adam)의 집에서 발견됐다.

섬 책임자인 모하메드 유스프(Mohamed Yoosuf)는 "사리탑은 이 지역에 예불 등을 올리는 종교 장소였음을 보여준다"며 "탑은 마치 서양장기 체스에서 쓰이는 졸(卒)과 같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슬람교가 몰디브로 전해졌을 때 파괴된 불교 유적의 일부라고 보인다"며 "땅을 파다가 발견 된 것이어서 탑이 약간 손상됐다. 이런 탑이 땅 속에 있

리라곤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몰디브제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1세기경으로, 스리랑카와 인도로부터 싱할라인이 건너와서 살았다고 한다. 처음에는 불교를 신봉했던 그들은 12세기 중엽부터 아랍인과의 교역 증대에 따라 이슬람교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고 이슬람교의 전래에 이슬람교가 주요종교로 자리 잡게 됐다.

불교유적이 발견된 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모하메드는 "1999년부터 고대 유적들이 이 섬 일대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3년에 학교를 신축할 때 복잡하고 정교하게 새겨진 산호초 벽돌이 발견됐고, 2006년에는 작은 부처상이 발견되기도 했다.

몰디브 언어·역사 연구센터장인 아메드 토탈(Ahmed Tholal)은

"센터에서 발견된 유적을 확인하기 위해 섬을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아직 낙관을 하기에 이르나 아마도 불교 유적이 유물이 이슬람이 전래되기 전의 것으로 추정되지만 보다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이 유적은 몰디브 문화유산 중 매우 잘 보존돼있어 관광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몰디브 관광부 장관인 아메드 알리는 "이러한 유적의 발견은 우리가 고대 유적을 갖고 있고 몰디브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우리는 보다 많은 세계인들에게 고대 몰디브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알리려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아은 기자

달라이 라마 두 명 될까?

달라이 라마·중국정부 후계자 선출 기싸움

달라이 라마와 중국 정부가 각 후계자를 지명해 내세우려 수천 년 티베트 불교 역사상 처음으로 두 명의 달라이 라마가 나올 수도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뉴욕타임즈(NYT)는 6월 7일 "인도로 망명한 14대 달라이 라마인 텐진 가초(74) 측과 중국 정부가 차기 달라이 라마 선출을 둘러싼 기싸움이 한창"이라고 보도했다.

차기 달라이 라마 선출은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600만 티베트 인들과 티베트의 실질적 독립을 부정해온 중국에게는 매우 중요한 이슈다.

1959년 인도로 망명한 달라이 라마의 활동은 아직도 왕성하다. 그러나 그의 나이가 일흔을 넘었고 건강도 이전만큼 좋지 않아 후계자 선출 논의가 끊이지 않는다.

뉴욕타임즈는 "차기 달라이 라마 선출은 전통적인 방식과 크게 다를 것이며 현 달라이 라마 14세의 생존 시에 후계자를 세울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를 반영하는 듯 달라이 라마는 차기 달라이 라마로 여성을 선출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달라이 라마가 전통을 깬 후계자 방식을 제안한 것은 자신의 후계자가 중국 정부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1995년 가초가 지명한 판첸 라마티베트 불교의 2인자를 부정하고 올해 19세 기일된 노르부를 판첸 라마 11세로 공표한 뒤 2월 장쑤(江蘇)에서 열린 제2회 세계 불교포럼 개막식에 내세우는 등 친중 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이아은 기자

미얀마 다독탑 무너져

군정 붕괴 신호탄?

미얀마 군사정부 지도자의 아내가 축복을 빈 탑이 무너지면서 군정이 붕괴되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인터넷서널 헤럴드 트리뷴(HT)의 6월 8일 보도에 따르면, 양곤 외곽에 있는 2300년의 역사를 함께한 다독(Danok)탑이 미얀마 군사정권 최고 지도자 탄 제국방장관의 부인이 축복의식을 치른 지 불과 몇 주 뒤인 6월 6일 산산조각 났다.

IHT는 이 같은 사태에 대해 "아시아에서 가장 미신적인 국가인 미얀마에서 탑의 붕괴는 부실공사의 결과가 아닌 흉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다독탑 붕괴는 군부가 미얀마 민주화 지도자 아웅산 수지 여사의 재판을 진행하던 중에 일어난 일이라 국민들 사이에서는 흉조설이 더욱 지지받고 있다. 이아은 기자

“안녕하세요~ 실버스타예요”

서울노인복지센터 어르신 전용 라디오 방송국 '실버스타' 개국

“자~ 방송들어갑니다. 준비... 쿨!”

“안녕하세요? 서울노인복지센터 라디오 실버스타 박재영 인사 올립니다. 오늘은 ‘한국 처유의 숲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DJ를 맡은 박재영(65· 숲 해설가 어르신)이 차분한 목소리로 포박포박 대본을 읽어 내려간다. 다소 긴장한 듯한 어르신의 모습이 마치 입학식 첫 날 초등학교생 같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가섭, 이하 센터)는 6월 9일 센터 내에 실버라디오 방송국을 개국했다. 어르신 전용 라디오방송국 ‘라디오 실버스타’는 서울시와 복지센터가 ‘9988 어르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실버문화벨트 사업 중 하나다.

어르신들을 위한, 어르신들에 의한 실버음악방송국인 라디오 실버스타는 노인들의 여가 활동 중 라디오 청취 및 TV 시청비율이 94.6% (한국보건사회연구원)로 매우 높다는 점에서 착안해 기획됐다.

라디오 실버스타는 방송계획부터 대본·제작까지 60세 이상 어르신 10여 명이 교대로 참여해 매주 화·목요일 두 시간(11:30~13:30) 방송



라디오 실버스타 1기 출신 DJ 어르신들이 직접 준비한 대본을 보며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을 진행한다. 개국하기까지 DJ 어르신들은 작년 9~12월 3개월간 드라마 소재 발굴을 비롯해 대본작성, 연기연습, 녹음, 프로그램 아이디어, 기획 등을 교육받았다.

DJ를 맡은 박재영 어르신은 “오늘 처음 진행한 거라 더 잘하고 싶었으나 아쉬움이 좀 남는다”며 “라디오 방송을 통해 많은 분들에게 숲, 생태계 식물 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DJ를 자원했다”고 말했다. 6월 9일 개국날 첫 방송의 DJ를 맡은 권호영(69) 어르신은 “호기심에 시작했는데 센터에서

지원하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아 DJ까지 할 수 있었다”며 “라디오방송 진행으로 삶에 대한 의욕과 긍지를 되찾아 줄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기뻐했다.

스튜디오는 밖에서도 어르신들이 방송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놓아 스튜디오 앞을 지나는 어르신들이 안을 들여다보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구경하기도 했다.

방송을 들은 김관(65· 개봉동) 어르신은 “방송하는 모습을 보니 학창 시절 연극반에서 활동하던 게 생각난다”며 “2기 교육생 모집 때 꼭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준희(87

· 홍제동) 어르신도 “내용이 참 재밌고 괜찮다”며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 흘러간 노래나 흥겨운 노래를 많이 틀어줬으면 좋겠다”고 청취소감을 밝혔다.

제3회 방송을 앞두고 있는 라디오 실버스타는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라디오 실버스타의 교육과정과 라디오 진행 전반을 맡고 있는 임지선 대표(문화예술교육연구소 에이스벤처)는 “평상시 어르신들이 라디오를 자주 듣기 때문에 라디오를 통해 쉽게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기에 본인 스스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에 대해 자신감을 얻고 자존감을 확립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며 어르신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라디오 실버스타는 7월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방송될 예정이다. 율하반기에는 2기 교육생을 모집해 정규방송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인터넷 방송을 거쳐 서울 전역 실버 방송국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아은 기자 bohjung@buddhapia.com

장애 잇은 숲 캠프

승가원 장애아동 참가

승가원장애아동시설(원장 동욱)은 6월 8~9일 시설 아동들을 위해 북한산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도봉 숲속마을(청소년수련원)에서 숲 체험 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야외 행사는 송석문화재단(설립자故 박문규 선생)과 보건복지가족부의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시설 아동 20명이 참여했다.

아이들은 △숲에 사는 여러 동·식물 중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 숲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숲 속의 주인공’ △원예치료사와 허브 화분을 만드는 ‘숲 느끼기’ △근육 운동·스트레칭을 통한 체력놀이 ‘숲 속 올림픽’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숲과 자연의 이치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아은 기자

“어르신 건강하세요!”

전국 효사랑 마라톤 대회... 2000여 명 뛰어

급속화되는 고령화 시대에 장애·노인시설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만성질환 노인들의 건강을 기원하고자 2000여 명이 모여 힘차게 뛰었다.

연꽃마을(대표 각현)은 ‘제2회 전국 효사랑 마라톤 대회’를 6월 7일 안성 파라림 요양원에서 개최했다. 이 대회에는 치매 등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을 모시는 가족, 친지, 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자원봉사자, 후원자, 일반인 등이 참가했다.

오전 9시에 파라림 요양원을 출발한 참가자들은 안성시 죽산



20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가한 '제2회 효사랑 마라톤대회'.

면 일대를 순환하는 21.0975km, 10km, 5km 코스를 달렸다.

특히 이날 특별상을 받은 차준성(64· 서울 송파구)씨는 월남전에 참전해 한 쪽 다리를 잃고 목발에 의지한 채 5km를 완주해 이목을 끌었다. 이아은 기자

선우어린이집 개원

대구 동화사 수탁·운영

대구 동화사주지 허균가 위탁운영하는 공립 선우어린이집이 6월 10일 개원식을 가졌다.

동구청 공립보육시설인 선우어린이집은 대구시 동구 율하동 휴먼시아 5단지에 155㎡ 규모, 26명 원생 정원으로 설립돼 3월부터 동화사가 수탁·운영하고 있다.

동화사 부주지 현관 스님은 “아이들이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자랄 수 있도록 사랑을 다해 키워달라”며 “동화사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개원식에는 이재만 동구청장과 장상수 동구의회 의장 등 관계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

손범현 대구지사장

원만한 깨달음! 행복한 현실창조! 아름다운 진화!

참나와의 친밀한 만남

참나(여래장)의 즉각적인 발언법 완성!

수 천 년 동안 어렵듯한 말로만 전해져서 긴가민가하던 전설이 20년간의 시행착오와 숱한 임상을 통해 마침내 누구나 즉각 실현할 수 있는 최상승법으로 현실화 됐다.

참나(여래장)가 즉각 발현되면 전신에 경락이 일거에 타통된다.

각종 암을 비롯한 당뇨, 고·저혈압, 아토피, 목·허리디스크, 척추측만, 자가면역질환 등등 거의 모든 난치성질환들이 단시일에 근치된다. 담석마저도 녹아서 소멸된다.

참나(여래장)가 즉각 발현되면 마음과 영혼의 장애가 치유된다.

우울증, 공황장애, 자살충동 등등의 심적 장애가 말끔히 해소된다. 특히 빙의, 귀접, 지박령 등등의 현상은 번잡한 절차 없이 원천적으로 해결된다.

참나(여래장)가 발현되면 최강의 양택발복능력이 된다.

9등급으로 양택을 정밀하게 판정하고 기운을 조정하여 최상급의 명당으로 만든다. 체험으로 증명된다.

영혼의 과학에 의거한 참된 영가전도법 완성!

영가의 상태를 직접 파악하고 직접 전도하며 결과까지 직접 확인하는 초유의 비법을 누구나 증득할 수 있다. (1:1 방식으로 완벽하게 전수하며 회비는 3백만원입니다.)

무료 체험신청하세요

좁은 지면에 담지 못한 놀라운 효능!
02)511-5945/ 010-9336-2698

자살영가천도재(무료)

우리 곁을 스스로 떠난 노무현대통령님, 연예인들 및 기업인 그 외 많은 분들, OECD중 일등자살공화국이란 오명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탓하기 전에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업이 많아 다음 생애도 과보는 계속 이어 집니다. 불보살님의 가피와 여법한 스님의 법력에 의한 천도와 유족님들이 지극정성으로 기도할 때 비로소 자살한 영가님은 모든 집착을 버리고 아미타불의 영접을 받아 극락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자살위기자라도 구하겠다는 목적으로 창건한 사찰 '묵언마을'에서는 한 많고 불쌍한 자살영가 천도를 다음과 같이 무료 봉행하오니 자살영가와 인연이 있는 분이나,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종교에 관계 없이 아무런 부담 갖지 말고 많은 동참 서원합니다.

일 시 : 불기 2553년(2009년) 6월 27일 10시 30분 ~ 14시까지

장 소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403-1

주 최 : 한국불교태고종 묵언마을

집 전 :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 문화부장 상진스님

신 청 : 031)672-3108. 카페(다음,네이버) “묵언마을”